

북한영화의 국제교류 관계연구(1972~1994): 소련, 동유럽을 중심으로*

정태수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목 차

1. 혁명전통의 계승과 확산의 적극적 교류(1972~1979)
2. 자주, 친선, 평화의 공세적 교류(1980~1988)
3. 우리식 사회주의의 수세적 교류(1989~1994)
4. 나오는 말

국문초록

북한에서 영화는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체제유지에 있어 가장 대중적으로 동원된 수단이었다.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부터 1980년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이전까지 북한은 적극적인 영화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영화교류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 이후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체제가 마무리 되면서 공세적으로 변모하였다. 즉 1980년대는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문화교류전략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영화교류가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영화교류는 1986년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정책, 개방정책이 추진되었고, 1989년 공산주의 전선이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였다. 이것은 1990년 제2차, 1992년 제3차, 1994년 제4차 평양영화축전의 개최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기 북한의 영화교류는 수세적 교류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공산주의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류 대상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북한의 영화교류는 자연스럽게 수세적 형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영화교류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교류의 성격이 형성,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북한, 김일성, 김정일, 영화교류, 미하일 고르바초프, 우리식 사회주의, 평양영화축전,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 A2A03049791).

ABSTRACT

**A Study 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North Korean Film (1972~1994):
Focused o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Jeong, Tae Soo
Professor / Department of There & Film, Hanyang University

In North Korea, cinema was the most popular means of maintaining the power and system leading to Kim Il-sung and Kim Jong-il. From the amendment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1972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uccession system of Kim Jong-il in 1980, North Korea actively promoted film exchanges. After the 6th Party Congress in 1980, these film exchanges became aggressive as the power system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came to an end. In other words, in the 1980s, the foreign cultural exchange strategy of 'independence, friendship, and peace' was adopted, which means that North Korea's film exchange developed in a more active form. However, North Korea's film exchanges took on a new situation as the Soviet Union's Mikhail Gorbachev implemented reform and opening policies in 1986, and the communist front began to disintegrate in 1989. And with the death of Kim Il-sung in 1994, North Korea was in a state of crisis. At this time, North Korea emphasized "our-style socialism". This can be seen through the holding of the 2nd in 1990, the 3rd in 1992, and the 4th Pyongyang Film Festival in 1994. For this reason, North Korea's film exchange during this period can be said to be a period of defensive exchange. This means that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communist identities fell into chaos, and exchange targets disappeared, so North Korea's film exchanges had no choice but to transform into a defensive form. In conclusion, it can be seen that film exchanges in North Korea are shaped by the political situation within North Korea.

Key words

North Korea, Kim Il-sung, Kim Jong-il, film exchange, Mikhail Gorbachev, our-style socialism, Pyongyang Film Festival,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논문투고일 : 2021년 08월 18일 / 논문심사일 : 2021년 09월 21일
논문게재확정일 : 2021년 09월 24일

1. 혁명전통의 계승과 확산의 적극적 교류(1972~1979)

1972년 2월 21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과 중공의 마오쩌둥 주석의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들의 만남은 냉전시기의 세계정치뿐 아니라 북한의 정치적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대외적 정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김일성 중심의 체제논리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그것은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에서 기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헌법의 핵심은 김일성을 수령으로 한 당-국가 체제를 1967년 확립된 유일사상체계로 마무리 하는 것이고 총 11장 149조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의 개정은 바로 주체사상을 통해 김일성을 정점으로 한 유일사상체계를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것이었다.¹⁾ 그러므로 1970년대의 북한은 주체사상의 유일사상체계화를 통해 김일성과 그 권력을 절대화시키는데 있었다.

이것은 김정일이 1972년 10월 당중앙위원직, 1973년 7월 당 선전선동부장 겸 사상비서를 거쳐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후계자로 확정된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²⁾ 김정일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수령, 당, 인민을 견고하게 결합시키면서 김일성을 절대화 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김일성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오랜 기간의 계급투쟁과 경제건설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위해서는 계속혁명론이 유지되어야 하며 김일성 수령의 사상체계, 혁명정신, 투쟁경험, 사업방법 등이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김정일의 ‘혁명전통계승론’으로 나타났다.³⁾

그러므로 이 시기는 김일성의 절대화를 위한 수령, 당, 인민을 구성하는 핵심인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가 강조되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혁명론’과 ‘혁명전통계승론’이 강조되었으며 이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주체사상이 1970년대 초반까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장 정확히 실천하는 이론으로 주장되었지만 1973년에 이르러 북한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넘어선 보편이론으로 주장되었음을 의미한다.’⁴⁾ 따라서 이 시기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정

1) 정규섭, 「권력구조의 변화: 유일체제와 국가기관」,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편, 『북한 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61쪽 참조.

2) 임영태, 『북한 50년사 2』, 들녘, 1999, 88쪽.

3) 안문석, 『북한현대사 산책 3』, 인물과사상사, 2016, 243쪽.

4) 위의 책, 227쪽.

점으로 한 주체사상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강조되었고 그것의 구체적 실천이 계속혁명론과 혁명전통계승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등장한 것이 1973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에 의해 시작된 사상, 기술, 문화라는 3가지 영역에서의 혁명적 기풍을 일으킬 수 있는 ‘3대 혁명소조운동’이었다. 이는 “사상적으로는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기술적으로는 현대적 기술을 갖추며, 문화적으로는 사회주의 인민으로서 건전한 생활양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⁵⁾ 이 운동은 주로 젊은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 전국의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파견되어 이를 주도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낡은 보수주의와 같은 사상을 버리도록 독려하여 당을 따르고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추동했다.⁶⁾

그러나 이 운동의 이면에는 세대교체가 내재되어 있었고 그것은 김정일의 후계체제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연동되어 있었다. 김정일은 “1974년 2월 19일 전국 당 선전 일군 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 사상 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과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북한사회 전체를 김일성주의화 할 것을 제의했다. 김일성주의는 주체사상을 이르는 것으로 북한사회 운영의 유일한 지침으로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는 것이었다.....이것은 1974년 4월 14일 김일성의 62세 생일을 기념해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을 김일성이 당 간부들 앞에서 직접 발표하면서 구체화되었다.”⁷⁾

그리고 “1975년 11월에는 김정일의 발기에 의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시작되었다. 3대혁명소조운동이 간부들의 의식개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대중 속의 운동이었다. 그것의 성격은 사상개조운동, 기술혁신운동, 문화개조운동을 동시에 전개하는 균중운동이었다.”⁸⁾ 물론 이것은 인민경제발전 6개년(1971-1976),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 계획(1978-1984)과 맞물려 있었지만 사상과 정신이 이 시기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의 다름 아니었다.

이와 같은 기조 속에 1970년대 북한의 정치, 사회, 문화를 지배하였으며 그것의 기반 위에 자주성에 기초한 다음과 같은 북한의 대외방침, 즉 “첫째,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둘째, 식민지민족해방운동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셋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로 계속 나가며, 넷째,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 기초 위에서 단결할 것”⁹⁾이 정해 졌다. 이러한 지침에 의해 1970년대 북한 영화교류의 중심에는 김

5) 위의 책, 220쪽.

6) 위의 책, 221쪽.

7) 위의 책, 252쪽.

8) 위의 책, 260쪽.

9) 리춘희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2』, 사회과학출판사, 1987, 88~89쪽.

일성을 절대화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와 내정불간섭, 상호존중, 평등에 입각하여 북한체제의 우월성과 독자성을 대내외적으로 확산시킴으로써 혁명전통의 계승을 통해 계속혁명론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김정일로의 완전한 후계체제 확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표가 이 시기에 부과되면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북한의 영화교류는 매우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른바 적극적 영화 교류의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방식은 레닌 탄생과 10월 혁명을 제외하고는 상호존중과 평등에 입각한 상호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것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블록, 즉 동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및 경제적, 문화교류 협정체결 등과 그 나라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 이를테면 조선 노동당 창건일, 8.15 해방, 북한 정권 수립, 조국해방전쟁으로 지칭된 한국전쟁 등과 지도자로서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과 그의 정치적 행위, 주체사상에 기반 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영화적 교류, 즉 영화상영회가 이루어졌다.

우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레닌 탄생과 10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 교류는 주로 북한과 소련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레닌 탄생 102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72년 4월 19일 천리마 문화회관에서는 조소친선협회 중앙위원 전충근, 오문한 부위원장, 김일성종합대학 지창익 제1부총장, 외무성 심동해 부국장, 그리고 소련의 쭈다리코브 대사와 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감상회와 사진 전시회가 열렸다.¹⁰⁾ 이후에도 레닌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상영회는 조소친선협회 중앙위원회에 의해 1975년 4월 22일, 1977년 4월 20일, 1979년 4월 19일에 각각 개최되었다. 또한 10월 혁명을 기념할 때도 소련영화가 상영되었다. 이 시기 10월 혁명 기념 소련영화 상영회는 1972년 11월 3일 평양예술극장에서 북한의 문화성과 조소친선협회 중앙위원회 공동명의로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몇몇 도시에서 개최되었다. 그리고 1978년 10월 혁명 61주년을 기념하여 11월 3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는 소련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련영화들을 관람하였다.¹¹⁾ 이때 상영된 영화들로는 주로 레닌과 10월 혁명을 다룬 영화들로 미하일 롬(M. Ромм)의 <10월에서의 레닌(Ленин в Октябре, 1937)>, <1918년에서의 레닌(Ленин в 1918 году, 1939)>, 세르게이 유트케비치(С. Юткевич)의 <레닌에 관한 이야기(Рассказы о Ленине, 1958)>, <총을 가진 사나이(Человек с ружьем, 1938)> 등과 같은 것이었다.¹²⁾ 여기에 북한과 소련과의 다양한 협정을 기념

10) <웨. 이. 레닌 탄생 백두뚝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2.04.20.

11)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61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8.11.04.

12)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신다섯뚝을 맞으며>, 《로동신문》, 1972.11.04.

하기 위한 영화적 교류도 있었다. 이를테면 ‘조소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29년’을 기념하기 위한 소련영화상영회가 1978년 3월 14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있었으며¹³⁾ 1978년 7월 6일 ‘조소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17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주재 소련대사 뻬. 까. 뻬메노브가 북한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소련 대사관에서 소연회와 소련영화를 상영하였다.¹⁴⁾

북한의 영화 교류는 소련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동질성을 지닌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졌다. 1976년 6월 26일 북한을 방문한 불가리아건설군예술단이 인민문화궁전에서 불가리아영화감상회를 열었고¹⁵⁾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1977년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북한영화, <꽃파는 처녀(박학·최익규, 1972)>, <한 자위단원의 운명(최익규, 1970)>, <금희와 은희의 운명(박학·엄길선, 1974)> 등이 상영되었다.¹⁶⁾ 그리고 1977년 9월 7일 북한의 천리마문화회관에서는 불가리아 사회주의 혁명 승리 33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불가리아 사진 전람회와 영화감상회가 마련되었으며¹⁷⁾ 1976-1977년도 ‘문화협조계획서’가 북한과 체코사이에 조인된 이후 1978년 5월 4일 제 9차 ‘세계직맹대회’기간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북한영화가 상영되었다.¹⁸⁾ 또한 1978년 5월 19일 루마니아 대통령 니콜라에 차우세스쿠(Nicolae Ceaușescu)의 공식친선방문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영화감상회가 있었고, 1978년 7월 12일 북한외교부는 북한주재 루마니아 대사관 관계자들을 위하여 기록영화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동지 우리나라방문>을 상영하였다.¹⁹⁾ 그리고 1979년 5월 24일 북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에서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인 요시프 티토(Јосип Тито)의 탄생 87주년을 맞이하여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사진 전시회와 영화감상회를 개최하였다.²⁰⁾ 이처럼 이 시기 북한의 영화교류는 레닌과 10월 혁명을 관통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공통성과 동유럽 국가 및 지도자들 간의 우호적 관계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3) <조소 두 나라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29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8.03.15.

14) <조소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17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8.07.07.

15) <불가리아건설군예술단이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로동신문》, 1976.06.27.

16) <뿔스까에서 우리나라 영화를 상영>, 《로동신문》, 1977.04.23.

17) <불가리아에서의 사회주의혁명 승리 33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7.09.09.

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전시회와 우리나라 사진전시회 및 영화감상회 뻬라하에서 진행>, 《로동신문》, 1978.05.04.

19) <대외문화연락위원회와 조선로므니아친선협회에서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로동신문》, 1978.05.20.

20)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위원장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인 이요씨프 브로즈찌토 동지의 탄생 87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9.05.24.

그러나 이 시기 북한 영화교류의 핵심은 북한의 역사적 사건과 그 과정, 김일성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한 항일혁명투쟁과 그의 탁월한 지도력, 그리고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이 시기 북한에서 혹은 외국주재 북한 대사관이나 유관단체를 통해 영화상영회라는 형태의 영화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것의 전형적 형태가 1972년 6월 2일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승리 35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소련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소련의 사회대표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소연회와 함께 천연색광복예술영화 <꽃파는 처녀> 감상회를 모스크바를 비롯한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국가에서 동시에 개최한 것을 들 수 있다.²¹⁾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영화상영회는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이때 상영된 영화는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주로 항일혁명투쟁을 다루면서 김일성의 뛰어난 지도력을 칭송한 것들이다. 예를 들면 1977년 보천보 전투 승리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재외 북한 대표부에서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렵니다>,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 <유격대의 오형제(최익규, 1968)>, <피바다(최익규, 1969)>, <한 지대장의 이야기(박학, 1965)> 등과 같은 김일성의 뛰어난 능력과 위대함, 혁명투쟁을 묘사한 영화들이 상영되었다는 것에서 드러난다.²²⁾ 이와 같은 특징은 1972년 9월 20일 체코슬로바키아 주재 북한 대사, 김영식이 평양에서 열린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김일성의 축하연설 3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프라하에서 국제기자동맹위원장과 체코슬로바키아 기자들을 초청하여 소연회와 영화감상회를 개최함으로써 이 시기 영화교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의 의도를 알 수 있게 하였다.²³⁾ 또한 새로운 영화들이 등장하면 북한은 북한주재 외교대표들을 초청하여 이들 영화들을 상영하기도 하였다. 이는 1973년 1월 25일 조선광복예술영화 <압연공들(김덕규, 1972)>과 1975년 2월 26일 조선천연색광복예술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 등과 같은 영화의 상영을 들 수 있다.²⁴⁾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그의 뛰어난 능력과 사상, 우월한 사회 현실에 대한 선전은 북한 영화교류의 중요한 목표였다. 이는 조선로동당창건과 같은 기념일을 맞아 외국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이를테면 1974년 조선로동당창건 29주년을 맞

21) <보천보전투승리 서른다섯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2.06.10.

22) <역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40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7.06.08.

23)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평양에서 열린 반미세계기자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신지 세뫼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로동신문》, 1972.11.04.

24) <외교부에서 여러나라 외교대표들을 위하여 광복예술영화 ‘압연공’감사모임을 마련>, 《로동신문》, 1973.01.26.-<여러나라 대사관성원들이 조선천연색 광복예술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을 보았다>, 《로동신문》, 1975.02.27.

이하여 북한은 재외 북한대표부를 통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서 북한영화 감상회를 개최하였다.²⁵⁾ 이들 국가에서 상영된 이 시기 영화들은 주로 김일성의 혁명투쟁과 절대화를 다룬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릅니다>, <아버지 원수님께 드리는 영광의 노래>, <한 자위단원의 운명>,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오병초, 1971)>, <영원한 전사(장웅강, 1972)>, <철길 위에서(김성교, 1966)>를 비롯한 기록영화들과 예술영화들이었다.²⁶⁾ 또한 1977년 조선로동당창건 32주년을 맞이하여서는 소련, 루마니아, 쿠바 등의 북한 대사관에서 <로동당의 기치따라>를 비롯한 몇몇 영화들이 상영되었다.²⁷⁾ 뿐만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0주년을 맞이하여 소련에서는 도서 전시회와 함께 여러 편의 북한 영화들이 보여졌다.²⁸⁾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기념하기 위해 폴란드에서는 사진 전람회와 영화감상회가 열렸고²⁹⁾ 유고슬라비아에서도 조선인민군창건 47주년을 맞이하여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³⁰⁾ 이것은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과정,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면모를 강조한 것과 그의 외국방문 기록, 예컨대 소련, 중국,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등의 방문을 기록한 영화들이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의 북한 주재 대표부를 통해 특정한 기념일에 맞춰 이들 영화가 반복적으로 상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일성에 대한 절대화가 영화교류의 핵심 목표였고 이를 위해 영화가 활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도는 소련영화인동맹대표단, 루마니아직맹대표단, 헝가리영화대표단 등이 김일성의 생가이자 혁명의 성지로 일컬어진 만경대 방문 등을 통해 더욱 노골화되었다. 궁극적으로 이 시기 영화교류는 김일성을 절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에 의한 이상화된 북한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의 이면에는 김정일로의 원활한 후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과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 영화교류는 김일성의 절대화에 필요한 혁명전통에 관한 것과 지속적인 혁명의 필요성, 그리고 주체적인 사상에 의한 북한의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영화교류의 목표는 북한영화가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넘어 국제영화제에 참가하거나 수상하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계급적 모순과 혁명을 위한 투쟁을 묘사한 영화 <꽃파는 처녀>가 1972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제18차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서 특별상과 특별메달을 수상하고, 같은 해 9

25) 리춘희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사회과학출판사, 1987, 185쪽.

26)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스물아홉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4.10.20.

27) <조선로동당창건 32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7.10.16.

28) <쏘련에서 우리나라 도서전시회와 영화상영순간진행>, 《로동신문》, 1978.08.29.

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9.01.02.

30) <영웅적 조선인민군창건 47돛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79.05.02.

월 20일부터 28일까지 몰도바공화국의 수도 키시너우(Chişinău)에서 진행된 ‘국제농업 부문영화축전’에서 기록영화 <과수의 나라>와 과학영화 <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됨으로써 본격화되었다.³¹⁾

특히 <꽃파는 처녀>의 수상은 영화를 통한 북한의 대외교류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이것은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서 7월 31일 상영된 <꽃파는 처녀>의 수상소식과 함께 이 영화에 대한 많은 외국인들의 감상평을 상세하게 소개한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이를테면 소련의 평론가인 쭈르코브는 “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진실로 인민을 위한 영화이고 사회주의 사실주의 작품이 되려면 이 영화처럼 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카를로비바리 영화축전 위원인 이탈리아의 까밀로 바리노는 영화를 보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존경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독일영화대표단 중 한 명은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중에서 조선영화가 제일 좋은 것이다”라고 하였고, 프랑스영화 대표단 중 한 명은 “당신들의 영화는 대단히 성공한 작품이다”라고 하였으며 영화축전 심사위원장은 “당신들이 받은 상은 보통 상이 아니고 규정된 상과는 대비가 안된다”고 하면서 “다른 그 어떤 영화도 당신네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³²⁾ 북한은 이러한 성과를 소개하면서 그것을 김일성에 의한 것으로 돌리면서 외국에서 그에 대한 흠모와 존경을 표시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것은 이 시기 북한영화가 어떤 형태와 수단으로 교류 목적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북한의 영화교류는 북유럽 국가들로 확대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영화교류형태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1973년 수교한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서 북한영화 감상회가 열렸던 것에서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북한은 영화를 본 사람들의 감상평을 소개하면서 김일성의 뛰어난과 이상화된 북한 사회를 전하고 있다. 이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영화상영주간에서 상영된 <꽃파는 처녀>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금강산 처녀(박학, 1969)>, <세상에 부럼없어라(박학, 1970)> 등을 본 현지인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김일성과 북한에 대해 찬사를 북한의 언론에 소개하면서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영화 <꽃파는 처녀>를 진정한 사회주의 사실주의 영화라고 칭하면서 한 학생의 말을 통해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제국주의자들을 쓸어 눕히기 위한 투쟁에로의 힘있게 호소하는 영화”라

31) <우리나라 기록영화 ‘과수의 나라’와 과학영화 ‘누에치기에서의 새로운 방법’이 국제영화축전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로동신문》, 1972.10.12.

32) <세계영화계를 뒤흔들어놓은 조선영화 <꽃파는 처녀>, <꽃파는 처녀>는 진실로 인민을 위한 영화이다. 사회주의 사실주의 작품은 이 영화처럼 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1972.08.09.

고 하였고,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대해서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있는 한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금강산 처녀>에서는 “해방된 조선의 여성들이 자기의 희망을 자유로이 꽃피우고 있는 사실을 훌륭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고 <세상에 부림없어라>에 대해서는 “진정 조선인민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행복한 인민이다”라고 소개하였다.³³⁾ 이러한 평가는 핀란드에서도 이어져 <꽃피는 처녀>를 “서구라파에서 처음 보는 완전히 새로운 형의 최고봉의 영화”라고 하였고, <한 자위단원의 운명>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 무장시키며 주인공과 더불어 혁명의 길에 나서게 하는 강한 충격을 준 영화”라 하였다.³⁴⁾ 그리고 노르웨이에서는 <꽃피는 처녀>를 향해 “의심할 바 없이 사회주의 사실주의 영화예술로서 최고봉”이라 하였고, <한 자위단원의 운명>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혁명의 불씨를 지퍼주는 것”이며 <세상에 부림없어라>는 “생활의 낭만이 가득 찬 영화”라고 하였다.³⁵⁾ 이는 <꽃피는 처녀>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을 두고 “세계영화사에서 새별과도 같이 찬연히 빛나고 위대한 혁명의 교과서이며 계급투쟁”이라는 덴마크의 찬사로 이어졌다.³⁶⁾

이처럼 이 시기 북한의 영화교류는 영화제 참가와 수상을 통해 북한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으로써 소련 및 동유럽 국가를 넘어 북유럽 국가로 영화교류의 경계를 확대하면서 현지인들의 찬사와 환호를 소개함으로써 혁명투쟁의 지속성과 김일성의 뛰어난 지도력, 그리고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국제영화제 참가와 북한영화상영주관을 통해 북한영화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혁명투쟁의 역사와 그의 뛰어난 지도력을 알리면서 그에 의한 북한 체제의 우월함을 확인받음으로써 영화를 북한대내외적인 선전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혁명전통과 계속혁명의 정당성, 자신들의 사상과 체제가 특별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집약해 놓은 것이 주체사상의 유일사상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을 겨냥한 것이 이 시기의 북한 영화교류의 핵심이었고 국제교류를 통해 획득된 성과들이 포장되어 북한 내부에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영화 교류의 목표는 김일성을 절대화하기 위한 혁명투쟁과 계속

33) <김일성수상님의 주체적이며 독창적인 문예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 있는 조선영화는 높은 사상 예술성으로 하여 세계영화예술의 수준을 한 계단 더 올려놓았다>, 《로동신문》, 1972.11.01.

34)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수상님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빛발아래 활짝 꽃핀 조선의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만세!>, 《로동신문》, 1972.11.08.

35) <김일성수상님의 해빛아래 활짝 꽃핀 조선의 주체영화는 세계영화발전의 새 시대를 열어놓았다>, 《로동신문》, 1972.12.07.

36)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꽃피는 조선의 영화예술은 세계영화발전의 휘황한 앞날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다>, 《로동신문》, 1973.01.02.

혁명의 정당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를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고 그 근거를 내면화하기 위한 목표가 영화교류의 핵심이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이 시기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영화교류를 추진하였다.

2. 자주, 친선, 평화의 공세적 교류(1980~1988)

1980년대 북한영화의 대외 교류 형태는 1970년대 북한의 목표가 실현된 것과 연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70년대가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를 통한 김일성의 절대화를 공고히 하면서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것의 결과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나타났다. 5일간 지속된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주석단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권력서열 4위로 발표되면서 그가 김일성의 후계자라는 것이 공식화되었다. 이것은 1974년 2월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정해진 뒤 주체사상에 기반 한 혁명전통계승론, 계속혁명론을 통한 후계체제가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제6차 당 대회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임이 공식화된 대회였으며 1970년대 북한의 정치적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이는 1970년대의 주체사상이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실천하는 이론으로 간주되었던 것에 비해, 1980년대의 주체사상은 1982년 김정일에 의해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적 원칙, 혁명이론, 영도방법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체계화되면서 1970년대의 주체사상의 의미를 대체하면서 김일성주의와 동일한 이론이 되었다는 것의 다른 아니었다.³⁷⁾

이러한 토대 위에서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의 대외문화교류전략이 ‘자주, 친선, 평화’라는 개념으로 1980년대 대외정책의 방향과 원칙으로 채택되었다. 여기서 자주는 북한이 외교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 외교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며 주체사상의 핵심개념으로서 정치, 외교 분야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고,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등과 함께 근본개념이다. 친선은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원활히 추진한다는 개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친선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간주하고 다음으로 비동맹국가와 제3세계 국가 순으로 친선의 대상을 설정했다. 또한 자본주의 국가들과도 친선관계를 맺어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평화는 제국주의의 침략전쟁과 전쟁

37) 안문석, 앞의 책, 228쪽.

정책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주, 친선, 평화의 외교정책은 1982년 4월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었고 1983년 9월 정권 수립 35주년 기념식에서 재차 강조되면서 북한의 외교이념으로 자리 잡았다.³⁸⁾ 이는 북한의 대외활동과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중요한 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친선과 단결, 협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것이었다.³⁹⁾

이처럼 북한의 외교정책이 자주, 친선, 평화로 정해진 것은 북한에서 김일성의 권력이 확고하고 김정일로의 후계체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이 ‘영광스러운 당 중앙’으로 호칭되면서 개인숭배가 시작되었고 1982년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에 맞추어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탑의 완성과 모란 경기장 앞 개선문의 건설로 나타났다.⁴⁰⁾ 또한 북한은 1980년대를 사회발전 단계에 있어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향한 단계’로 규정하면서 속도전의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였고, 이는 1982년 ‘80년대 속도 창조운동’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은 혁명의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킬 것을 주문하면서, 이를 위한 3가지 기본 조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즉, 1. 당 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 정신. 2.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3. 치밀하고 책임적인 조직, 정치 사업 등을 갖추는 것을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요구하였다.⁴¹⁾ 그리고 1984년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감하게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인 합영법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김일성의 순방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치와 행위는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1989년 이전까지 북한의 대외교류가 자주를 근간으로 친선을 강화하면서 평화라는 형태로 매우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영화교류는 이러한 북한의 대외교류 방침인 주체사상에 근거한 자주 개념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친선을 강화하고 평화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의 영화교류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확립이라는 정치일정의 원활한 마무리로 인한 자신감에 의해 공세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의 방식은 영화교류의 전통적 형태라 할 수 있는 레닌 탄생과 10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소련과의 관계와 특별한 북한사회를 반영한 영화들을 중심으로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을 비롯한

38) 안문석, 『북한현대사 산책 4』, 인물과사상사, 2016, 27~28쪽.

39) 리춘희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 관계사 2』, 사회과학출판사, 1987, 201~202쪽.

40) 안문석, 앞의 책, 29, 44쪽.

41) 위의 책, 47, 52쪽.

다양한 국가들에 적용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레닌 탄생 110주년을 맞이하여 1980년 11월 22일 북한 주재 소련대사 게. 아. 크리울린에 의해 소련대사관에서 북한관계자 리종묵, 정송남, 리화선, 오문환, 문병록 등을 초청하여 레닌의 활동을 보여주는 기록영화와 예술영화를 상영한 것과⁴²⁾ 1985년에 이어 1986년 11월 4일 10월 혁명 69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소련영화상 영주간이 북한의 락원영화관에서 문화예술부 허백산 부부장과 소련대사 니콜라이 슈브니코프, 모스필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것에서 나타난다.⁴³⁾ 이를 통해 확인된 것은 1980년대에도 여전히 레닌 탄생과 10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소련과의 영화교류가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련과의 영화교류는 레닌 탄생과 10월 혁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협정과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서도 이루어졌다. 즉 8.15 해방 35주년을 기념하여 조소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1980년 8월 12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북한의 기록영화와 소련의 예술영화가 상영되었으며 1985년 9월 19일 소련주재 북한대사관에서 해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영화 <조국해방 40돐>을 상영하였다.⁴⁴⁾ 또한 1986년 1월 하순 소련국가영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뽀뜨르 꼬쓰찌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소련영화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하여 1986년도 영화부문 교류사업계획서에 조인하였다.⁴⁵⁾ 그리고 1946년 3월1일 운동 27주년을 기념하는 대중군중대회에서 김일성을 테러하기 위한 수류탄 투척을 막은 소련군인인 노비치 노비첸코의 영웅적 행위를 북한의 엄길선과 소련의 엘도르 우라즈바예브(Эльдор Уразбаев)에 의한 조조합작영화 <영원한 전우>가 1986년 4월 소련영화잡지 《소베트스끼 필름(Советский Фильм)》에 소개되었다.⁴⁶⁾ 같은 해인 1986년 9월 11일 북한은 소련과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30년을 맞이하여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주최로 소련대사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영화감상회와 소연회를 열었다.⁴⁷⁾ 그리고 1986년 11월 11일 소련주재 북한대사관에서는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련을 친선방문>을 비롯한 영화들이 상영되었다.⁴⁸⁾ 이어서 1986년 11월 24일에는 1987-1990년 사이 북한과 소

42) <웨.이. 레닌 탄생 110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80.04.23.

43) <위대한 10월혁명 69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86.11.05.

44) <8.15해방 35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80.08.13; <소련주재 우리나라 대사가 기록영화 ‘조국해방 40돐’에 대한 감상회를 마련>, 《로동신문》, 1985.09.21.

45) <소련영화 대표단 우리나라 방문>, 《조선영화》(1986년 4월호), 문예출판사, 1986, 96쪽.

46) <조소친선의 화폭 예술영화 ‘영원한 전우’를 소련잡지가 소개>, 《조선영화》 1986년 8월호, 문예출판사, 1986, 18쪽.

47) <조소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30돐 영화감상회와 소연회 진행>, 《조선영화》 1986년 12월호, 문예출판사, 1986, 40쪽.

48) <소련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를 마련>, 《조선영화》 1987년 2월호, 문예출판사,

련사이의 영화기술협정이 체결되었고, 1987년도 영화부문 교류사업계획서가 11월 29일 모스크바에서 조인되었다.⁴⁹⁾ 1987년 3월 16일 조소친선협회 중앙위원회에서는 조소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3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소련의 대사 니콜라이 슈브니코브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영화감상회를 열었다.⁵⁰⁾ 그리고 소련과 과학기술협 의위원회 창설 20년에 즈음하여 1987년 10월 16일 소련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영화감상 회와 소연회가 마련되었다.⁵¹⁾ 심지어 북한에서는 소련군대 및 해군함대절 70년을 맞이 하여 조소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1988년 2월 18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영화감상 회가 개최되었다.⁵²⁾ 그리고 1988년 3월 16일 북한은 소련과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3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소련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소련의 외무성 부상 보리스 채블린 등의 관계자들과 조소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 화감상회와 소연회를 열었다.⁵³⁾ 뿐만 아니라 1988년 7월 5일 소련대외친선문화협력 회연맹과 조소친선협회의 주최로 조소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27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모스크바의 친선회관에서 북한의 기록영화 <새조선>이 상영되었 다.⁵⁴⁾ 또한 1988년 8월 12일 조국해방 43주년을 맞이하여 소련주재 북한대사관에서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부부장 엠. 엔. 스미르놉스끼, 소련외무성 부상 차블린 등을 초대하여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몽골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 하여 가시는 길에 소련의 여러 지역을 통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몽골인민 공화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시는 길에 소련의 여러 지역을 통과>를 함께 감상하였 다.⁵⁵⁾ 그리고 같은 해인 1988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43주년을 맞아 소련주재 북 한대사관은 <새조선>에 대한 상영회를 개최하였다.⁵⁶⁾ 이처럼 소련과의 영화적 교류는

1987, 24쪽.

49) <조선-소련사이의 영화기술협정체결>, 《조선영화》 1987년 3월호, 문예출판사, 1987, 80쪽; <우리나라와 소련사이의 영화부문 교류사업계획서 조인>, 《조선영화》 1987년 4월호, 문예출판사, 1987, 32쪽.

50) <조소 두나라 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38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7년 6월호, 1987, 80쪽.

51) <조소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의회 창설 20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8년 1월호, 문예출판사, 1988, 20쪽.

52) <소련군대 및 해군함대절 70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8년 5월호, 문예출판사, 1988, 44쪽.

53) <소련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와 소연회 마련>, 《조선영화》 1988년 6월호, 문예출판사, 1988, 32쪽.

54) <조소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27돐 영화감상회 모스크바에서 진행>, 《조선영화》 1988년 12월호, 문예출판사, 1988, 44쪽.

55) <조국해방 43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8년 11월호, 문예출판사, 1988, 49쪽.

56) <소련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 진행>, 《조선영화》 1989년 1월호, 문예출판사, 1989, 52쪽.

단순히 레닌 탄생과 10월 혁명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 협정과 체결 등을 기념하기 위해서 영화교류가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이것은 1980년대에 도 북한의 영화교류에 있어 여전히 소련이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위치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영화교류 형태는 이 시기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적용되었다. 하지만 소련과의 영화교류가 다양한 역사적 관계로 얽혀 있는 것과 달리, 동유럽 국가들과의 교류는 북한과 동유럽 나라들과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과 지도자의 비범한 능력과 통치행위를 선전하기 위한 상호주의에 입각한 친선의 의미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1980년대 북한의 대외전략인 자주, 친선, 평화의 기조 속에서, 1984년 2월 2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사업부에서 북한주재 외국 대표부들을 초청하여 <영광으로 빛나는 한해>라는 기록영화를 상영한 후 김용순 비서에 의해 “자주, 친선, 평화를 기반으로 한 대외정책으로 사회주의 나라들과 손잡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확인된다.⁵⁷⁾ 이는 1985년 5월 14일 폴란드 바르샤바 조약체결 30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주재 바르샤바조약 참가국 대사들이 영화감상회와 소연회를 열었고⁵⁸⁾ 헝가리 대사관에서는 1986년 12월 5일 《민주조선》의 김정숙 주필과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과 다른 나라 대사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영화감상회와 소연회를 마련하였으며⁵⁹⁾ 1987년 4월 2일 헝가리 해방 42주년을 기념하여 북한의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주최로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영화감상회가 개최되었다.⁶⁰⁾ 또한 1987년 5월 7일 체코슬로바키아 해방 42년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주재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와 소연회가 진행되었다.⁶¹⁾ 1987년 7월 14일 폴란드 재생 43년을 맞이하여 천리마 문화회관에서는 소연회와 폴란드 영화가 상영되었고⁶²⁾ 1987년 8월 18일 북한의 동대원영화관에서는 루마니아의 반제, 반파쇼, 및 사회, 민족적 해방혁명승리 43주년을 기념하여 루마니아 예술영화 <제1전선에서>, <철새들이 날아온다> 등의 예술영화가 보여졌다.⁶³⁾ 그리고 1988년 2월 29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 근로인민

57)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사업부에서 우리나라 주재 외교대표부성원들을 위하여 영화감상회 연회를 마련>, 《로동신문》, 1984.02.25.

58) <와르샤와 조약체결 30돐에 즈음하여>, 《로동신문》, 1985.05.15.

59) <웡그리아출판전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7년 3월호, 문예출판사, 1987, 38쪽.

60) <웡그리아 해방 42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7년 7월호, 문예출판사, 1987, 71쪽.

61) <체코슬로벤스꼬 해방 42돐에 즈음하여 영화감상회와 사진 전람회 진행>, 《조선영화》 1987년 8월호, 문예출판사, 1987, 25쪽.

62) <뵐스까 재생 43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7년 10월호, 문예출판사, 1987, 72쪽.

63) <로므니아에서의 반제, 반파쇼 및 사회, 민족적 해방혁명승리 43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7년 11월호, 문예출판사, 1987, 40쪽.

의 2월 승리 40년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감상회가 열렸다.⁶⁴⁾

이들 동유럽 국가의 영화상영회는 동시에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이들 나라에서 북한 영화가 소개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1980년 한국전쟁, 즉 조국해방전쟁승리 27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북한이 북한 주재 소련, 유고슬라비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등의 대표부들을 초청하여 예술영화 <축포가 오른다(류호손·김영, 1978)>, <음모자들 속에서(감독미상, 1978)>와 같은 영화감상회와 소연회를 개최한 것에서 드러난다.⁶⁵⁾ 또한 1982년 4월 1일 북한 노동신문은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서 일제강점을 반대하는 북한 최초의 예술영화 <내고향(강홍식, 1949)>과 함께 <피바다>,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엄길선, 1979)>, <꽃피는 처녀>, 김일성의 투쟁역사와 관련한 <백두산(엄길선, 1980)>, <조선의 별, 10부작(엄길선, 1980-1987)>, 그리고 사회주의 조선의 현실을 묘사한 <압연공들>, <노동가정(류호손, 1971)>, <열네 번째 겨울(김영호, 1980)>, <이름없는 영웅들, 20부작(류호손, 1978-1981)>과 함께 <목란꽃(정기모, 1971)>, <고향길(김영, 1966)>, <해빛을 신고 간다(리덕규, 1976)>, <당신은 나를 잘못봤소(민정식, 1975)>, <유원지의 하루(김덕규, 1978)>와 같은 영화를 분석하면서 소개하였다고 보도했다.⁶⁶⁾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6주년을 맞이하여 1984년 9월 3일 체코 프라하에서는 <안개속의 과녁(김유삼, 1983)>이 상영되었고 1984년 9월 6일 소련의 모스크바 포름 영화관에서는 북한영화상영주간이 열렸다.⁶⁷⁾ 또한 북한은 1984년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영화 시사회에서 북한주재 외국대표들을 초청하여 예술영화 <새별(류영만, 1983)>, <공장의 주인들(리승호, 1984)>, <시련을 뚫고(오병초, 1983)>, <개척자들(김영호, 1984)>과 기록영화 <내조국>을 선보이면서 북한영화의 우수성을 선전하였고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영화예술교류사업을 발전시켰다.⁶⁸⁾ 1985년 10월 31일 유고슬라비아연방공화국의 세르비아공화국에서 열린 ‘조선영화상영주간’에서는 소책자를 통해 “1970년대는 당의 주체적인 문예노선이 찬란하게 개화 발전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였고 영화 <조선의 별>, <누리에 붙는 불(박학·엄길선, 1977)>,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엄길선, 1978)>, <이 세상 끝까지(김영호, 1977)>, <열네 번째 겨울>, <꽃피는 마을(김

64) <체코슬로벤스꼬 근로인민의 2월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8년 6월호, 문예출판사, 1988, 20쪽.

65)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27돐에 즈음하여>, 《노동신문》, 1980.08.04.

66) <조선영화는 세계적 범위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동신문》, 1982.04.03. 참고로 혁명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백두산을 묘사한 동명의 기록영화 <백두산(1976)>이 존재한다. 『조선중앙연감 1977』, 조선중앙통신사, 1978, 227쪽.

67) <체코슬로벤스꼬에서 우리나라 영화감상회 진행>, 《노동신문》, 1984.09.08;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 영화상영주간 개막>, 《노동신문》, 1984.09.09.

68) <조선영화시사회 진행>, 《노동신문》, 1984.08.30.

영호, 1970)>, <농민영웅(류호손, 1975)>, <초행길(오병초, 1980년 상편, 1985년 하편)>, <이름없는 영웅들>, <금희와 은희의 운명>, <혈육 전·후편(민정식, 1979)> 등을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주체사상, 계급의식을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⁶⁹⁾

이처럼 1980년대 북한의 영화교류 형태는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정책에 의해 다양한 북한의 예술영화와 기록영화들이 북한주재 외국 대표부, 혹은 외국주재 북한대표부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통해 전개되었다. 그 중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절대화하기 위한 그들의 탁월한 지도력과 특별한 사회주의 체제로 발전된 북한의 우월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화들은 교류의 핵심이었고, 이는 1982년 2월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사로청 제7차대회>라는 영화감상회와 소연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사를 유도하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⁷⁰⁾ 특히 1984년 5월 김일성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순방을 기록한 영화들, 즉 소련방문을 기록한 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소련을 방문>, 루마니아와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방문에 대한 김일성의 기록을 담은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로므니아를 방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헝가리아를 방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 및 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유고슬라비아를 방문>과 같은 영화들이 그들 나라에서 상영된 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인 것이다.⁷¹⁾ 또한 김일성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영화상영회를 통한 교류도 이와 같은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1987년 4월 14일 김일성의 75세 생일을 맞이하여 모스크바와 카자흐스탄에서 북한영화 상영회가 열린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⁷²⁾ 이처럼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영화교류에 있어 1970년대와 다른 점은 김일성의 정치행위, 즉 소련 및 동유럽 국가 방문을 다루거나 김일성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에 근거한 북한의 사회를 다룬 기록영화 등이 적극적으로 상영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1970년대 영화교류가 향

69) <유고슬라비아에서 조선영화상영순간 개막>, 《로동신문》, 1985.11.11; <유고슬라비아에서 조선영화상영순간 개막>, 《조선영화》 1986년 1월호, 문예출판사, 1986, 48쪽.

70)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손님들을 위하여 영화감상회와 소연회를 마련>, 《로동신문》, 1982.02.17.

71) <기록영화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및국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소련을 방문’에 대한 영화감상회>, 《로동신문》, 1984.09.0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솔하신 우리나라 당 및 국가대표단의 로므니아, 헝가리아 방문에 대한 영화감상회>, 《로동신문》, 1984.11.01; <우리나라 영화감상회, 유고슬라비아와 말타에서 진행>, 《로동신문》, 1984.12.21.

7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75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7년 7월호, 문예출판사, 1987, 29쪽; <소련 까자흐스탄가맹국에서 우리나라 영화감상회 진행>, 《조선영화》 1987년 7월호, 문예출판사, 1987, 43쪽.

일혁명투쟁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중심이었다면 1980년대는 김일성을 직접적으로 절대화, 우상화하는 영화들이었고, 그것은 매우 적극적이면서 공세적으로 북한의 영화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시기 영화의 중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와 영화교류가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북한의 공세적 대외 영화교류를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프랑스와 영화교류는 1984년 4월 11일 프랑스 영화문화헌고(시네마테크 프랑세즈로 추정됨)의 주최로 파리 뫼피두문화회관에서 ‘조선영화회고상영주간’이 열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이상영회에서는 예술영화 <꽃파는 처녀>를 비롯해 <내고향>, <공중무대(김덕규, 1972)>, <숲은 설레인다(장영복, 1982)>, <우리는 묘향산에서 다시 만났다(오병초, 1983)>와 기록영화인 <오늘의 평양>, <집단체조>, <인민들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명승의 나라>, <오랜 문화의 나라>, <폐허우에 솟아난 조선> 등이었다. 특히 북한의 언론에서는 <꽃파는 처녀>를 보고 프랑스 영화문화헌고 부총지배인 앙드레 리외빠루와 유네스코 공무원인 비그의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안겨주었고”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영화들이 수많이 창작되었다고 하면서 <유격대의 오형제>와 같은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들과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을 주제로 한 예술영화인 <열네 번째 겨울>, <청춘의 심장(조경순, 1981)>, <언제나 한 마음(리재준, 1981)>, <그날의 맹세(리재준, 1983)>, 온 사회를 혁명화하고 조선 로동당의 방침을 묘사한 <로동가정>, <꽃피는 마을>이 있으며, 그 외 <사과 딸 때(김영호, 1971)>, <포구의 처녀들(김태남, 1971)>, <우리 철차판매원(고학립, 1972)>, <처녀지배인(김덕규, 1973)>, <대지에 뿌리 내린다(김덕규, 1976)>와 사상예술성이 높은 <조선의 별>, <이 세상 끝까지(김영호, 1977)>,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 하고 있는 영화 <산정의 수리개들(김성교, 1975)>, <압연공들>, <이름 없는 영웅들> 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 결과와 성과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로 마무리 하였다.⁷³⁾ 프랑스와 영화교류는 이후 1986년 2월 12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프랑스 파리 뫼피두국립문화예술회관에서 ‘조선영화회고상영주간’이 또 다시 열렸다. 이때 상영된 영화로는 예술영화 <탈출기(신상욱, 1984)>와 기록영화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중앙위원회 비서이신 김정일 동지의 중국방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예술영화 <조선의 별 1,2부>, <월미도(조경순, 1982)>, <금희와 은희의 운명>, <최학신의 일가(오병초, 1966)>, <춘향전

73) <조선인민이 영화예술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로동신문》, 1984.05.21.

(유원준·윤룡규, 1980)», <돌아오지 않은 밀사(신상옥, 1984)>, <소금(신상옥, 1985)> 등이었다. 이들 영화를 가리켜 프랑스 영화문화고 상영국장 베르나르 마르띠냥에 의하면 “조선영화는 사상예술성에 있어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전히 성공한 예술작품이다”라고 하였고,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프랑스의 지지 및 행동위원회 위원장인 앙드레 오브리는 김일성주석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라 하였으며 프랑스 영화평론가 삐에르 리씨앵은 “예술의 천재이신 김정일 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조선에서는 영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물질, 기술적 장비들을 훌륭히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⁷⁴⁾ 이들의 호평은 궁극적으로 1980년대 북한의 권력 지형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확고하게 뿌리내렸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영화교류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극대화된 형태가 국제영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직접 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영화교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한 성과중 하나로 1972년 제18회 카를로비바리 영화축전에서 <꽃파는 처녀>와 1984년 제24차 카를로비바리 영화축전에서 신상옥의 <돌아오지 않은 밀사>가 특별 수상함으로써 북한의 영화가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처럼 1984년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거행된 제8차 타슈켄트국제영화제에서 예술영화 <새별>이 수상한 데 이어 1986년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제9차 타슈켄트국제영화제에서 2.8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예술영화 <그들의 모습에서(류호손, 1985)>가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의 상장과 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리고 1985년 7월 제14차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예술영화 <소금>의 최은희가 연기상(금상)을 받았다.⁷⁵⁾ 여기에 1986년 7월 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제25차 체코슬로바키아 카를로비바리 영화제에서 <봄날의 눈석이(림창범·고학림·곽철삼·리희성, 1985)>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축전 참가자들과 관람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기본상인 주상과 축전국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상장을 수상하였다.⁷⁶⁾

자주, 친선, 평화라는 1980년대 북한의 외교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 영화제 참가나 다양한 외국에서의 북한영화 상영회를 통한 교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1987년 평양영화축전을 직접 개최하기에 이르도록 견인하게 된

7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화예술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들 중의 하나로 되었다>, 《조선영화》 1986년 5월호, 문예출판사, 1986, 65~66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화예술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들 중의 하나로 되었다>, 《로동신문》, 1986.03.18.

75) <조선영화인의 긍지>, 《로동신문》, 1985.07.16; <제9차 타슈켄트국제영화축전에서 조선예술영화 ‘그들의 모습에서’에 상장과 상을 수여>, 《조선영화》 1986년 9월호, 문예출판사, 1986, 46쪽.

76) 김룡봉, 『조선영화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393~394쪽;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87』, 조선중앙통신사, 1987, 275쪽.

주요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비서인 김정일이 영화 예술을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예술로서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가 된다고 한 언급은 북한에서 영화와 영화를 통한 교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국제영화제 참가와 수상을 통한 북한의 영화교류가 급기야 평양에서 영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절정에 이르게 된다.

1987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1차 평양영화축전에서는 2.8예술영화 촬영소에서 만든 <도라지꽃(조경순, 1987)>을 비롯하여 기록영화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안고>, <조선의 사시절>, 과학영화 <조선의 오랜 문화> 등이 선보였는데,⁷⁷⁾ 그것의 의미는 1980년대 북한이 외교지침으로 정한 자주, 친선, 평화의 상징적 조치이며 북한의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이는 평양영화축전을 축하하는 김일성의 축하문을 통해 나타난다. 그는 ‘자주, 친선, 평화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열리는 평양영화축전을 축하하면서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영화예술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 “영화예술은 자주적 인간의 보람찬 투쟁과 아름다운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화하여야 하고 인민들을 계몽하고 각성시켜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여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과 친선과 단결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공동의 위업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중요한 담보”라고 하였다.⁷⁸⁾

그리고 영화축전을 알리는 자주, 친선, 평화라는 깃발이 평양시내에 나부끼는 가운데 북한의 <도라지꽃>이 화불 금상을, 리비아 예술영화 <파편>, 이집트 예술영화 <죄없는 사람>이 각각 화불 은상을, 북한의 <어머니의 소원(림창범·려운각, 1987)>, 유고슬라비아 예술영화 <이것도 과거일로 될 것이다>가 화불 동상을 수상하였고 <도라지꽃>의 주연배우 오미란이 금연기상을, 만화영화 <도적을 쳐부신 소년>이 화불 금상을, 기록영화 <조선의 사시절>이 기술상이 수여되면서 폐막되었다.⁷⁹⁾ 평양영화축전은 ‘자주, 친선, 평화’라는 북한의 1980년대 외교방침이 구현된 것이었고, 그것은 이 기간 동안 1973년에 등장한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에 대해 “우리시대 진보적 영화예술인들이 지

77) <성황리에 진행될 평양영화축전>, 《로동신문》, 1987.09.01.

78) <제1차 빨리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 참가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로동신문》, 1987.09.02.

79) <제1차 빨리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 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 성과리에 폐막>, 《로동신문》, 1987.09.14.

침으로 삼아야 할 더 없이 귀중한 재부이고” 김정일은 “세계문예리론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시며 예술의 천재이며 그를 모시고 살며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전 세계에 소리높이 자랑하여야 한다”는 외국인 참가자들의 찬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⁸⁰⁾ 이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영화교류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 정책을 통해 김일성의 절대화와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 주체사상에 근거한 특별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선전함으로써 그것의 보편화를 획득하는데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우리식 사회주의의 수세적 교류(1989~1994)

1986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정치적 개혁과 경제적 개방정책을 선언하면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함으로써 소련의 급격한 정치적 혼란과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혁명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소련의 해체와 새로운 민족국가의 등장, 다양한 동유럽 국가들의 분화로 이어졌다. 이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벨트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북한은 이러한 사회주의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역사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오랫동안 주체사상으로 강력한 김일성의 통치이론을 통해 유지되어 온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주체사상과 그 논리를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정비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1980년대 말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 정립된 개념으로 1978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협의회에서 김정일이 ‘당의 전투력을 높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라는 연설에서 ‘우리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일성이 ‘사람을 교양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고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는 사업도 우리식대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⁸¹⁾ 이후 1989년 폴란드를 시작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체제수호에 전력을 다하였다.⁸²⁾ 이것은 1989년 12월 김정일의 ‘조선민족 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키자’는 연설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웠던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991년 5월 5일 김정

80) <영화예술발전의 생동한 모범>, 《로동신문》, 1987.09.19.

81) 임영태, 앞의 책, 207쪽.

82) 고유환, 「통치이데올로기: 주체사상」,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편, 앞의 책, 114쪽.

일의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에게 한 연설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고 하면서 정립되었다. 따라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1990년대 등장한 북한 사회주의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⁸³⁾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이념의 단결성으로 어떠한 외부적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모습의 의연함을 유지하는 것이 이 시기 당면한 과제였다. 이것은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북한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었고, 영화도 그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 시기 북한의 영화교류는 이전 시기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것에서 어느 정도 관망적인 태도로 국제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의 직접적 이유는 영화교류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다양한 분화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가장 전통적인 영화교류 방식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레닌 탄생과 10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소련과의 영화교류를 유지하였다. 이는 레닌 탄생 119주년을 맞이하여 1989년 4월 25일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와 소연회가 진행되었고⁸⁴⁾ 사회주의 10월 혁명 74년을 기념하기 위해 소련대사와 대사관 관계자들,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조쏘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91년 11월 6일 천리마문화회관에서 <10월에서의 레닌>을 상영한 것에서 알 수 있다.⁸⁵⁾ 또한 소련과의 다양한 협정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 지속되었던 영화교류도 유지되었다. 이를테면 1989년 3월 17일 소련과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소련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소련 외무성 부상 이. 아. 로가초브 등과 소련과학원 동방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여 기록영화 <축전준비소식>을 감상하였고⁸⁶⁾ 조쏘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28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 7월 12일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소련영화 <하늘에서 땅으로>와 북한영화 <림격정(장영복, 1987)>이 상영되었으며⁸⁷⁾ 이듬해 1990년 7월 3일 29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

83) 임영태, 앞의 책, 208~209쪽. 참고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내용으로는 첫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노선을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 하고 있고, 둘째, 수령에 의한 유일적 영도체제와 김정일 후계체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셋째, 시장경제제도나 개인의 사적소유를 지극히 부차적인 측면에서만 용인할 뿐이고, 넷째, 체제생존경쟁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며, 다섯째, 우리식 사회주의는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자주, 평화, 친선을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위의 책, 230쪽.

84) <웨이, 레닌 탄생 119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9년 6월호, 문예출판사, 1989, 43쪽.

85)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74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92년 1월호, 문예출판사, 1992, 29쪽.

86) <조쏘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40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9년 5월호, 문예출판사, 1989, 29쪽.

87) <조쏘, 우호, 협조 및 호상협조에 관한 조약체결 28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9년 10월호,

한주재 소련대사관에서 소련예술영화상영회가 있었다.⁸⁸⁾ 뿐만 아니라 소련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는 미제에 의한 조선전쟁도발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 4월 21일 조조친선협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기록영화 <조국해방전쟁 제1부>, <미제침략자는 조선전쟁의 도발자>를 상영하였다.⁸⁹⁾ 그리고 1991년 10월 11일에는 북한과 소련과의 외교관계설정 43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련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소련외무성 부상, 러시아 연방 외무성 부상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라는 기록영화가 상영되었다.⁹⁰⁾ 소비에트 연방이 와해된 상태에서 1992년 4월 23일 모스크바의 친선회관에서는 조선인민군 창건 60년을 기념하여 조조친선협회 중앙위원회 주최로 러시아 외무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예술영화 <철길을 따라 천만리(김길인, 1984)>가 상영되었다.⁹¹⁾

이처럼 소련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소련, 그리고 러시아와 영화 교류는 일정부분 지속되었고, 이는 형제의 나라들이라고 지칭되었던 동유럽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일부 적용될 수 있었다. 이를테면 체코슬로바키아 근로인민의 2월 승리 41주년을 기념하여 조선체스꼬슬로벤스꼬 친선협회에서 개최한 영화감상회가 1989년 2월 23일 열렸고⁹²⁾ 1991년 2월 26일 폴란드 뿔스까조선친선협회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참가한 영화감상회에서 <평양의 모습>이 상영되었다.⁹³⁾ 그리고 조국해방전쟁승리 38년을 기념하여 루마니아, 프랑스 주재 북한 대표들에 의해 해당 나라의 인사들을 초청하여 7월 25일과 27일에 각각 영화감상회를 열었다. 여기서는 <민족분렬의 상징 콩크리트 장벽>, <통일의 꽃>, <조국해방전쟁 제6부>, <폐허우에 솟아난 조선>이 상영되었다.⁹⁴⁾

이러한 영화교류의 유지와 지속은 갑작스런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국가들의 분화로 이어진 국제정세 속에서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

문예출판사, 1989, 33쪽.

88) <조조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29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90년 10월호, 문예출판사, 1990, 57쪽.

89) <소련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 진행>, 《조선영화》 1990년 9월호, 문예출판사, 1990, 39쪽.

90) <조조 두 나라사이의 외교관계설정 43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92년 1월호, 문예출판사, 1992, 44쪽.

91) <모스크바에서 영화감상회 진행>, 《조선영화》 1992년 7월호, 문예출판사, 1992, 48쪽.

92) <체스꼬슬로벤스꼬 근로인민의 2월승리 41돐에 즈음하여>, 《조선영화》 1989년 4월호, 문예출판사, 1989, 52쪽.

93) <우리나라 영화감상회 부른디와 뿔스까에서 진행>, 《조선영화》 1991년 5월호, 문예출판사, 1991, 32쪽.

94) <우리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영화감상회 진행>, 《조선영화》 1991년 10월호, 문예출판사, 1991, 36쪽.

던 북한의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

이것의 상징적 장면이 1989년 7월1일 부터 8일 동안 평양에서 열렸던 제13차 세계 청년학생축전과 1987년 제1차 평양영화축전에 이어 3년이 지난 1990년 제2차, 1992년 제3차, 그리고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제4차 평양영화축전이 열렸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는 1980년대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소련의 해체가 가속화 되면서 독립국가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화 혁명으로 인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벨트가 빠른 속도로 와해되어가고 있는 상황 변화 속에서, 북한은 주체사상에 근거한 우리식 사회주의와 각종 국제행사를 통해 외부의 변화에 대해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곧 1980년대 외교방침인 자주, 친선, 평화를 1990년대에도 지속시키는 것이었고, 이는 1987년 제1차 평양영화축전에서와 마찬가지로 1990년 9월 1일에서 13일까지 열린 제2차, 그리고 제3차, 제4차 평양영화축전에서도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하여!’가 영화제의 이념과 구호로 정해졌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는 대외적 상황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에 대한 고심은 제2차 평양영화축전에 참석하여 연설한 연형묵 총리의 “영화예술은 인민들을 계몽하고 선진적인 사상으로 무장시켜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게 하며 자주적인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한다”⁹⁵⁾고 하는 언급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이때 영화제에서 상영된 영화들은 흔히 북한에서 고전명작으로 일컫는 <꽃파는 처녀>, <피바다>, <조선의 별>, <민족의 태양(1987년 1부, 1988년 2부는 엄길선이 연출했고, 1989년 3부, 1990년 4부는 박창성이 연출했으며, 1991년 5부는 리재준이 연출했다)>, <유격대의 오형제>, <생의 흔적(조경순, 1989)>, <요람(김덕규, 1988)>, <나의 행복(김영호, 1988)>, <자신에게 물어보라(박정주, 1988)>, <도라지꽃>, <심장에 남는 사람(고화림, 1989)> 등과 같은 항일혁명투쟁과 김일성,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심을 고취시키는 것들이었다. 특히 김정일에 대한 찬사, 즉 그의 정력적인 지도 밑에 우리의 영화예술이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훌륭히 구현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영화예술로 발전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혁명적 세계관을 세워주고 문화정서생활을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하면서 인민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배려와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였다.⁹⁶⁾ 이는 김정일에 대한 절대화와 함께 그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을 영화제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친선단결, 자주, 이념이 꽃피고 있다는 말이 난무한 평양영화

95) <평양영화축전은 영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계기로 될 것이다>, 《로동신문》, 1990.09.02.

96) <친선단결의 정 넘치는 평양영화축전장>, 《로동신문》, 1990.09.09.

축전을 통해 역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영화제에서의 다양한 나라들의 수상을 통해 드러난다. 이를테면 제2차 평양영화축전에서 화불 금상으로 이란에 술영화 <행복의 작은 새>가 수상하였고, 은상으로는 이집트의 <엘 아라고즈>, 동상으로는 쿠바의 <압력밑에서>, 영화문학상으로는 폴란드의 <프란치셰크부와의 곡절많은 인생>, 연출상에는 몽골의 <잊어버린 이야기>, 촬영상으로는 월남의 <꽃으로 덮인 강> 등 매우 다양한 국가들의 영화들이 수상하였다. 북한영화는 <생의 흔적>이라는 영화가 국제심사위원회 특별상과 함께 오미란이 연기상을 수상했고, 기록영화 화불 금상으로는 북한의 <통일의 꽃>이 수상하였다. 이처럼 제2차 평양영화축전에서 다양한 나라들이 수상하게 된 것은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북한의 대외 교류전략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 평화, 친선을 위하여!’ 라는 구호는 1992년 9월 6일 개최하여 13일 폐막된 제3차 평양영화축전에서도 유지되었고, 이는 “영화예술을 자주위업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 나라와 민족 사이의 이해를 두텁게 하고 친선과 단결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는 리종옥 부주석의 축하연설에서도 나타난다.⁹⁷⁾ 또한 이 시기 평양영화축전의 참가자들이 만경대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함으로써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헌신, 주체사상으로 “조선의 모든 사람을 경탄시키고 있다”는 그들의 찬사와 평양영화축전에 출품되어 화불 금상을 수상한 영화 <민족과 운명(1992)>에 대한 반향을 적극적으로 보도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영화제에 참석한 외국인들을 통해 <민족과 운명(1992년 9월 평양영화축전 이전에 만들어진 1부는 최상근, 김영호, 박정주, 고학립, 리재준, 김유삼, 2부는 최상근 김영호, 문정송, 백현구, 3부는 최상근, 김영호, 조경순, 고학립, 문정송, 4부는 최상근, 김영호, 조경순, 고학립, 최형식, 5부는 최상근, 박정주, 박주국, 6부는 최상근, 박정주, 리재준, 김유삼, 박주국, 7부는 최상근, 박정주, 리재준, 김유삼, 백현구에 의해 만들어졌음>를 가리켜 “사회주의 조선에서만 만들 수 있는 대결작”,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 “사상성과 예술성이 완벽한 경지에 오른 영화”라는 수식어를 통해 이 영화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⁹⁸⁾ 평양영화축전에 참가한 외국인들을 통해 북한영화와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사를 유도하는 방식은 이전 시기 재외 북한대표부에 의해 개최된 북한영화 상영회에서의 외국인들의 소감을 전하는 것, 즉 김일성과 김정일의 탁월한 지도력과 주체사상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체제우월성을 선전하는 방식과 동일한 것이었다. 특히 김정일에 대한 호칭

97) <평양영화축전이 훌륭한 결실을 거두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로동신문》, 1992.09.07.

98) <사회주의 조선에서만 만들 수 있는 대결작, 완전무결한 영화>, 《로동신문》, 1992.09.14.

과 찬사는 1991년 12월 25일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김일성이 김정일에 권력을 이양 하면서 물러난 후 1992년 4월 국방위원장을 국가주석에서 분리해 최고인민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출하는 국가주권의 최고 군사기관으로 독립, 격상 시키는 사회주의헌법의 개정과 김정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받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의 영화교류가 김일성과 김정일을 절대화하기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으며, 그것은 대외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스스로가 자신의 외교방침을 변화시키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특히 이 시기를 지배하고 있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상징적 장면은 1994년 제4차 평양영화축전이 개최되기 불과 며칠 전 북한이 파산에 직면한 소련의 영화업을 과감하게 비판한 것을 들 수 있다. 북한에서 소련영화업 비판의 초점은 빼빼르 부르그의 렌필름(Ленфильм)사(社)의 사유화 조치 의도와 모스필름(Мосфильм)의 사유화에 대한 비난이었다. 북한에서 사유화는 곧 영화업의 파산이며 이는 “소련영화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는 소련영화 배우 찌호노프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되었다.⁹⁹⁾ 이와 같은 보도는 영화업의 사유화가 지니는 것을 비판하면서도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의 결과를 비난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련 영화업에 대한 비판과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불구하고 1994년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4차 평양영화축전의 개최는 오히려 이 시기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불식시키는 국면 전환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제4차 평양영화축전은 김일성 사망에 대한 추모의 분위기 속에서도 ‘자주, 평화, 친선’이라는 이념과 구호 하에 “자주성, 반제자주, 반전평화의 기치의 강조와 함께 김정일의 현명한 령도 하에 영화예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장철 부총리의 축하연설로 시작되었다.¹⁰⁰⁾ 이 대회에서는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가 상영되었고 그에 대한 외국 참가자들의 칭송을 보도했다.¹⁰¹⁾ 그리고 폐막 연설에서는 장철 부총리의 “조선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로 마무리 되었다.¹⁰²⁾ 특히 1990년대 개최한 평양영화축전 개최의 의의를 북한은 ‘주체, 친선, 평화’라는 대외교류의 원칙에 근거하여 “첫째, 참가국들이 자주적으로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낙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둘째,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에 투쟁하는 인민들의 모습과 보람 있는 생활

99) <사유화가 초래한 영화업의 파산상태>, 《로동신문》, 1994.09.01.

100) <제4차 평양영화축전이 빨리불가담운동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로동신문》, 1994.09.27.

101)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할 것이다’를 관람한 제4차 평양영화축전 참가자들의 반향>, 《로동신문》, 1994.10.04.

102) <제4차 빨리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평양영화축전 폐막>, 《로동신문》, 1994.10.05.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셋째,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생동적인 민족적 풍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두었다.”¹⁰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북한의 영화교류는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인해 공산주의 벨트가 무너지고 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국가들의 분화로 인해 이전처럼 이데올로기의 동질성에 근거한 국가 간의 각종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에서 혹은 재외 북한 대표부에서 서로의 영화를 상영하면서 이어진 교류는 매우 제한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붕괴에 다름없었다. 이를 북한에서는 평양영화축전을 통해 돌파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북한에서 외국의 대표부들을 초청하거나 외국주재 북한 대표부에 의해 진행되어 온 김일성, 김정일의 탁월한 지도력과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노력이 평양영화축전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것이 곧 평양영화축전으로 일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김일성, 김정일의 지도력과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체제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확인받아야만 북한의 지도자와 체제가 보다 견고해 진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기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에 근거한 정신적 개념을 통해 내부의 단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평양영화축전을 통해서 대내외에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지도자와 체제가 견고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이 시기 북한의 영화교류는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권 나라들의 붕괴로 교류 대상 자체가 사라짐으로써 극도로 제한된 형태의 수세적 교류만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4. 나오는 말

북한에서 영화는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력, 체제유지에 있어 가장 대중적으로 동원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영화는 북한의 정치적 목표와 지향, 변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 김정일로의 후계자 확정, 1980년 ‘자주, 친선, 평화’라는 외교방침과 1989년 동유럽 국가의 분화와 1991년 소련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와해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벨트, 그리고 1994년 갑작스러운 김일성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북한 영화교류의 전 시

103) 모순영,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66쪽.

기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1972년부터 1994년까지 북한의 영화교류는 이와 같은 시기적 변화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으로의 개정과 1980년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공식적으로 확립되기 이전까지의 시기에는 김일성을 수령으로 한 당-국가 체제를 주체사상의 유일사상화를 통해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유연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화교류가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북한의 교류대상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영화상영회뿐만 아니라 국제영화제에 참가하거나 교류영역을 북유럽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확인된다. 이는 혁명전통계승론과 계속혁명론을 통한 김일성 권력의 절대화와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 논리를 위해 영화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교류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 영화교류는 1980년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일의 후계체제 확립이 공식화되고 김일성, 김정일의 권력체제가 마무리 되면서 공세적으로 변모하였다. 즉 1980년대는 1970년대의 정치적 목표인 김일성의 절대화를 통한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달성되었다는 자신감과 ‘자주, 친선, 평화’라는 대외문화교류전략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영화교류가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김일성의 정치적 행위를 다루거나 이상화된 북한 사회를 선전하는 영화들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에 영화상영회, 영화상영주간을 통해 매우 빈번히 소개되었다. 또한 이들 영화들은 단순히 소련과 동유럽 나라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카를로비바리, 모스크바 영화제와 같은 다양한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심지어 영화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을 통해 상영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 영화교류의 형태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987년 평양영화축전을 통해 그것은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의 영화교류는 1986년 소련의 고르바초프에 의한 개혁, 개방정책이 추진되고 1989년 공산주의 벨트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차원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즉 소련의 개혁, 개방정책으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벨트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91년 소련마저 다양한 민족국가로 해체되었다. 여기에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은 북한으로 하여금 안팎으로 긴급한 역사적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북한이 전면적으로 들고 나온 논리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강조한 ‘우리식 사회주의’였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겨냥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념적, 정신적 단결성으로 어떠한 외부적 위기에든 흔들림 없이 의연함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1990년 제2차, 1992년 제3차, 1994년 제4차 평양영화

축전의 개최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수세적 교류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교류 대상이 사라진 상태에서 그동안의 적극적이고 공세적 영화교류는 자연스럽게 수세적 형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영화가 얼마나 지배체제권력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으면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는지를 이 시기 변해가는 북한의 영화교류의 궤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통봉, 『조선영화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리춘희 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2』, 사회과학출판사, 1987.
인문석, 『북한 현대사 산책 3』, 인물과사상사, 2016.
_____, 『북한 현대사 산책 4』, 인물과사상사, 2016.
임영태, 『북한 50년사 2』, 들녘, 1999.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위임, 『북한 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77』, 조선중앙통신사, 1978.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연감 1987』, 조선중앙통신사, 1987.

<논문>

- 모순영, 「김일성 시기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신문 및 잡지>

- 《로동신문》
《조선영화》